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왕국의 훈련

성경: 마 16:16-18, 21-28

I. 마태복음 16장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을 계시하며, 또한 건축의 원수를 계시한다.

- A.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반석이신 자신 위에, 변화된 사람인 베드로와 같은 돌들로 교회를 건축하신다 — 마 16:16-18.
- B. 음부의 문들, 곧 사탄의 권세 혹은 어둠의 세력은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교회를 공격한다 — 마 16:18.
- C.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다 — 마 16:21.
 - 1.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었다 — 요 12:24.
 - 2.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이다 — 비고 고후 4:10-12, 갈 2:20.
 - 3.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된다 — 창 2:21-22, 비고 엡 4:15-16.
- D. 베드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 마 16:22.
 - 1.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려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음부의 문들 중 하나인 베드로의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온 사탄이었다 — 마 16:23.
 - 2. 자아와 생각과 혼 생명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손상하기 위해 나오는 주된 문들이다 — 마 16:23-26.

II.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음부의 문들을 닫는 데 달려 있다 — 마 16:24-26.

- A. 우리는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 마 16:24.
 - 1. 육체는 창조된 몸이 사탄의 본성인 죄로 인해 부패한 것이다(롬 6:12, 14, 7:8, 11, 17, 20). 자아는 창조된 혼에 사탄적인 생각, 곧 사탄의 생각이 더해진 것이다.
 - 2. 사탄의 생각, 사탄의 사상이 사람의 혼 안에 주입되었을 때, 사람의 혼은 사탄의 체현인 자아가 되었다 — 창 3:1-6, 마 16:22-23.
 - a.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몸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 사탄의 사상, 사탄의 생각이 하와의 혼 안에 주입되었다.
 - b. 하와의 생각이 사탄의 사상으로 중독된 후에 그녀의 감정이 동요되었고, 그런 다음에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결정하였다.
 - c. 이때 혼의 각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중독되고 말았다.

- d. 자아는 혼 생명의 체현이고, 자아는 생각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자아와 혼 생명과 생각은 하나 안의 셋이다.
 - e. 이 셋의 배후에는 교회를 손상하기 위해 자아를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 — 마 16:23.
3.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이다.
- a.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중시하시기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지를 중시하신다 — 마 7:21-23, 비교 수 9:14.
 - b. 몸의 원수는 자아이다. 자아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고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젯거리이다.
 - 1)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들을 의지해야 한다 — 출 17:11-13, 행 9:25, 고후 11:33.
 - 2) 주님과 몸은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의지한다면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에게서 독립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다.
 - 3) 우리가 의존적일 때 자아가 사라지며, 자아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갖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된다.
 - 4) 자아 생명이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만질 수 있고 몸을 알게 된다.
4. 다음의 것들은 자아의 여러 표현들이다(참조 영한 동변 찬송가 866장, 5-6절,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28장, 5-6절).
- a. 자아에는 야심과 교만과 자기를 높임이 있다 — 마 20:20-28, 벰전 5:5, 롬 12:3, 민 12:1-10, 16:1-3, 빌 2:3-4.
 - b. 자아에는 자기 의(義), 자기 정당화, 다른 이들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이 있다 — 마 9:10-13, 눅 18:9-14, 벰전 4:8, 요 3:17, 8:11, 눅 6:37, 마 7:1-5.
 - c. 자아에는 자기 성찰과 자기 비하가 있다 — 아 2:8-9, 고전 12:15-16.
 - d. 자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나 인도하는 이들이나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 있다 — 마 6:14-15, 18:21-35, 막 11:25-26, 골 3:13.
 - e. 자아에는 실망과 낙심이 있다 — 비교 롬 8:28-29, 고후 4:1.
 - f. 자아에는 자기 사랑, 자기 보존, 자기 추구, 자기 연민이 있다 — 마 13:5, 20-21.
 - g. 자아에는 불평과 따집이 있다 — 출 16:1-9, 빌 2:14.
 - h. 자아에는 타고난 기호와 선호에 근거한 타고난 애정(우정)이 있다 — 마 12:46-50, 빌 2:2하, 고전 12:25.
 - i. 자아에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들이 있다 — 요 11:21, 23-28, 39, 행 15:35-39, 비교 고전 7:25, 40.
 - j. 자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다 — 고전 16:12.
5. 우리가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자아를 잠가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이들은 복이 있다 — 비교 눅 23:34, 행 7:60.
- a.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아로 가득하다는 증거이다.
 - b. 나의 자아가 잠겼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 눅 23:34, 행 7:60.

6.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아의 문을 잠그기 위해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 a.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위하든지 반대하든지, 형제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자아의 문을 잠가야 한다 — 고후 12:15.
 - b. 자아의 문이 잠긴다면 교회는 건축될 것이다.
- B. 우리는 ‘십자가를 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 마 16:24.
 1.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 마 26:39, 요 18:11.
 - a. 주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억지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셨다 — 마 26:39.
 - b. 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여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시기 위해서였다 — 요 12:24.
 - c. 십자가는 주님께 큰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관심하셨다 — 히 12:2, 골 1:24.
 2.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라는 말은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a.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며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이다.
 - b. 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진정한 하나를 갖기 위해 교회를 짊어지고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는 것이다 — 요 17:21-23, 엡 4:3, 13, 고전 1:10, 빌 2:2.
 3.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한다. 즉 십자가에 머물면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종결시킴 아래 두어야 한다 — 눅 14:27, 롬 6:6, 갈 2:20, 빌 3:10, 고전 15:31.
 - a.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 이제 이 생명 안에서 건축되기 위해, 우리는 자원하여 기쁘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
 - b. 우리는 우리의 취향이나 느낌이나 의식을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를 갖는 것이다 — 요 17:21-23, 엡 4:3, 13, 고전 1:10, 빌 2:2.
- C. 우리는 ‘혼 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 마 16:25.
 1. 혼 생명을 구하는 것은 혼이 자신의 누림을 얻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아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 a. 하나님은 사람을, 누림을 필요로 하는 혼으로 창조하셨다(창 2:7).
 - b. 하나님을 사람의 영 안에 받아들이고 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과 오락이어야 한다 — 비교 느 8:10, 롬 14:17.
 - c. 주 예수님은 오는 시대에서 그분의 혼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이 시대에서 그분의 혼의 누림을 잃으셨다(요 10:11, 사 53:12). 우리도 반드시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요 12:24-26).
 - d.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생명을 구한다면, 오는 시대에서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생명을 잃는다면, 오는 시대에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 마 16:25.

- e.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혼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하며, 죽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 고전 16:22, 2:9, 눅 14:26, 9:23, 계 12:11.
- 2.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현재의 혼적인 누림을 모두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서 양육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 건축될 것이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다 — 히 12:2.
- 3. 왕국이 나타날 때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왕국 보상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생명을 구하는지 아니면 잃어버리는지에 달려 있다 — 마 16:25-28, 25:21, 23.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교회의 건축을 위해 자아를 부인함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음부의 문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문들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음부는 죽음의 장소로,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곳이다. 따라서 그곳은 죽음이 우세한 영역이다. 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음부를 여행하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음부가 그분을 붙잡으려고 전력을 다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었다. 죽음은 부활을 이길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부활은 죽음을 항상 정복한다.

문들과 열쇠들

문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언급되었고, 열쇠들은 19절에 언급되었다. 원수에게는 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열쇠들이 있다. 문들은 열쇠들을 이기지 못하지만, 열쇠들은 문들을 통제한다. 원수의 문들이 열쇠들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물의 문들이 그것들을 열고 닫는 열쇠들에 의해 통제되듯이, 문들은 열쇠들의 통제하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열쇠들이 있다! 사탄에게는 많은 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열쇠들이 있다!

이제 왕국 열쇠들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아야 한다.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위대한 성경 교사에게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왕국 열쇠가 둘이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유대인 믿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데 첫 번째 열쇠를 사용했고(행 2:38-42),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믿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데 남은 하나의 열쇠를 사용했다(10:34-48). 나는 여전히 이 가르침이 정확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열쇠들의 항목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절의 문맥을 주의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교회, 왕국, 음부의 문들, 왕국 열쇠들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21절은 베드로가 시문에서 베드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반드시 발생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것을 위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야 했다. 요나의 아들 시문이 하나님의 아들인 베드로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바요나 시문이 베드로가 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본과 길이신 주님

마태복음 16장 22절은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절은 번역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이 절을 “주님, 당신 자신을 붙잡히 여기소서.”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번역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께

그분 자신을 공홀히 여기시라고 말하고 있었다. 또 다른 번역은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이다. 주어가 하나님인지 주 예수님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그 강조점은 ‘자신(self)’에 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든 주 예수님이시든 ‘자신’이 강조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 그다음 24절과 25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들에 따르면, 주님은 본이시자 길이시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즉 본과 길로서 그분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문들을 통해 나타나는 사탄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해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보았듯이, 18절은 문들을 말하고 19절은 열쇠들을 말한다. 문들과 열쇠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21절부터 26절까지를 숙고해야 한다. 사탄은 문들을 통해 나타난다. 첫 번째 문은 자아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사탄이 나타나는 음부의 문들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사탄은 심지어 우리가 선한 마음을 지닐 때에도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든 악하든, 자아는 사탄이 나타나는 첫 번째 문이다. 자아에 더하여, 21절부터 26절까지는 또한 생각과 혼을 말하는데, 이 둘도 역시 사탄이 나오도록 하는 문들이다. 따라서 자아와 혼과 생각은 사탄이 나타나도록 하는 주된 문들이다. 많은 때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그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열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문들을 드러낼 뿐 아니라 열쇠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열쇠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아는 열린 문이지만, 자아 부인은 그것을 잠그는 열쇠이다. 두 번째 열쇠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가 자아와 혼과 생각을 잠그는 열쇠임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열쇠는 혼 생명을 잃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들에 있는 세 가지 열쇠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혼 생명을 잃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열쇠들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베드로가 오순절날과 고넬료의 집에서 열쇠들을 사용했지만, 우리도 역시 말씀의 이 부분에서 발견된 주관적인 세 가지 열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문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더하여 자아와 혼과 생각은 세 가지 중대하고도 주관적인 문들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문들이 잠긴다면, 어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자아에 의해 교회가 손상됨

이 장에서의 나의 부담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다.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교회는 유대교나 영지주의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주로 자아에 의해 손상을 입었다. 언젠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그가 교황을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더 강한 교황, 즉 자아를 더욱 두려워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것도 자아보다 더 교회의 건축을 손상하고 좌절시키는 것은 없다. 자아는 혼의 체현이며 생각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자아와 혼과 생각은 ‘하나 안의 셋’이다. 이 셋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는 교회생활을 손상하려고 자아를 조종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자아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교회생활을 떠났다. 1948년에 상하이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자아로 가득했고 그의 혼은 어느 누구도 잠글 수 없는 열린 문이었다. 그는 장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 자주 불평했다. 어느 날 그는 집회에서 일어나 부정적인 많은 것들을 말했다. 그

가 부정적인 말을 다하자, 나는 그에게 “형제여,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곳에 관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도 함께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곳을 발견할 수 없다면, 부디 조용히 여기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교회 집회에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으며, 순회 전도사를 고용했다. 그 전도사는 의견을 달리한 그 형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워치만 니 형제님을 대적하는 긴 기사를 썼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 형제는 교회생활에 손상을 입었으며, 동시에 그 자신은 교회생활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자아에서 비롯되었다. 그 형제가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요나의 아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건축도 없었다. 이것은 사탄이 자아를 통해 나온 결과였다.

마음이 상하는 것의 심각성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고자 한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무심코 “나는 교회생활 안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장로들과 다른 인도하는 이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먼저 견뎌야 한다. 한편으로 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책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에 대해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내가 자아를 잠그는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유는 자아가 너무 열려 있고 강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열린 문을 통해 사탄이 나오며,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된다.

아마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틀릴 수 있지만, 교회가 틀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이다. 교회가 옳든 그르든 그것은 여전히 교회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 의해 마음이 상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 이것은 교회의 건축을 좌절시킨다.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함

우리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의 건축에 관해 말하고, 또한 음부의 문들과 왕국 열쇠들에 관해 말한다. 문들을 잠그는 열쇠들이 없이는 교회가 건축될 수 없다. 이러한 열쇠들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건축되지 못했다. 우리가 건축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만지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자아가 열린다. 우리가 음부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음부로부터 어떤 것 곧 사탄이 나온다. 자아를 걸어 잠그는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길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자아를 걸어 잠그는 것이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음이 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심판대를 세우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과 결산하자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곳에서 왜 마음이 상하게 되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위해 변명한다면, 주님은 그 변명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문제는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이다. 어떤 세균들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지만, 그러한 세균도 책상을 병들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아로 가득하다는 증거이다. 나의 자아가 잠겨 있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천연적인 애정이 없음

지금까지 나는 마음이 상하는 것에 관해 말했다. 이제 천연적인 애정에 관해 한마디를 하고 싶다. 교회생활 안에는 어떤 천연적인 우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특별한 친구로 여긴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이 자아로 가득하다는 표시이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호에 맞고, 여러분도 그들의 기호에 들어맞는다. 여러분은 서로의 기호를 살찌운다. 이것은 매우 해로운 것이며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순수하고 신성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사적인 애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적인 애정이 성도들과 여러분의 관계 안으로 기어들어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아로 가득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교회생활 안에는 그러한 애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동일하다.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애호가 있는 것은 자아로 가득한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을 손상한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우리의 형제자매로 여기며, 그 누구도 우리의 친구로 여기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을 얻어야 한다. 주님의 건축을 위해 교회생활 안에서 천연적인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어떤 천연적인 애정이거나 관계나 느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천연적인 애정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 어떤 형제가 나를 천연적인 애정으로 사랑할 때마다 나는 깜짝 놀란다. 그때는 내가 자아를 부인하는 열쇠를 사용할 때이다. 나는 나 자신을 걸어 잠그고, 그 형제의 그러한 애정에서 피할 것이다. 여러분이 형제의 자아를 살찌우고 있고 그가 여러분의 자아를 살찌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아의 문을 걸어 잠그는 열쇠를 사용해야만 한다. 자아를 걸어 잠그지 않는다면, 사탄이 자아의 문을 통해 나올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요나의 아들들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실 수 없을 것이다.

감추어진 자아

천구백여 년 전에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세기가 지났는데도 왜 우리에게 아직도 건축이 없는가? 그것은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가 소홀히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장들 안에서 교리들에 관해 말할 의도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와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다. 오, 감추어진 자아! 베드로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사탄이 나오기 위한 출구가 되는 감추어진 자아가 있었다. 나는 주님의 분별력을 귀히 여긴다. 내가 주님이었다면, 나는 분별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베드로의 염려를 가지 있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자아의 문을 통해 사탄이 나왔음을 즉시 분별하셨다.

나는 교회들 안에 형제의 집과 자매의 집이 있는 것이 기쁘다. 그렇지만 우리는 체험을 통해 그러한 집에서 살 때 두 종류의 결과가 있음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천연적인 우정을 형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족하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실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아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형제의 집과 자매의 집에 사는 이들의 자아는 잠겨야만 한다. 자아가 잠기면 우리에게 건축이 있게 될 것이다.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잠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축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아 부인이라는 효과적인 열쇠를 사용하여 자아와 혼과 생각을 잠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건축은 좌절될 것이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함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절에 있는 ‘나’는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나’는 본이자 길이다. 더 나아가 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나’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도 있을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며 존재한다. 우리의 더럽혀진 자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님의 순결하고 죄 없는 자아까지도 부인되어야 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교회도 절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

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이 없이 교회가 건축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아 생명을 살찌우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형제와 너무 많이 접촉하던 것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 건축은 전진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앎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유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앎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세 가지를 알기 원했음을 보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이다. 10절의 ‘그분’이 곧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나’이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십자가로 갈 수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자신 안에서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라고 말한다.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된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 주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함께 건축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

빌립보서 전체가 건축에 관한 책이다. 빌립보인들 가운데는 분쟁이 있었고 건축이 부족했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건축되도록 돕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 바울은 이 건축이 그들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건축을 이루어 내라고 말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건축을 놓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형제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이 처음 이사를 왔을 때는 형제들과 사는 것이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 어떤 형제들과는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에 관하여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형제의 집에 남아서 죽음을 당하라. 여러분은 이러한 죽음을 견딜 수 없을지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분을 따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지에 대해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단순히 자아 부인의 열쇠를 사용하여 주님께 야멘 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걸어 잠그는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공과를 배운다면 함께 건축될 것이고 강한 증거가 될 것이다. 또 우리가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습성과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건축될 수 있음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다.

건축을 위해 자아를 잠금

마태복음 16장은 수 세기 동안 너울에 가려져 있었다. 아마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참으로 말씀하려고 하신 것을 알지 못한 채, 거둬들여서 이 장을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해력을 주셔서, 열쇠들의 사용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걸어 잠그는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생활에서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아를 잠그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모든 문제들은 자아의 문을 통해 나오는 사탄으로부터 온다. 이 문이 잠길 때, 사탄은 감금되고 문제들은 조금도 없게 된다.

나는 이 장들에서 단지 교리에 불과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 대신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건축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건축된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 교리적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 안에서 자아를 걸어 잠그는 자아 부인의 열쇠를 사용하기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위하든 위하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반드시 자아를 잠가야만 한다. 형제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환영하든, 미워하여 환영하지 않든 관계없이 여전히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를 가두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고, 교회 건축을 갖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잠그지 않는다면 건축을 갖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워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105-117쪽)